

행정학의 한국화 논의, 무엇을 남겼나

행정대학원 오 석 홍

다른 문화권에서 발전한 학문을 반성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외래적 학문의 어떤 부분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제의 해결에 적절한 것을 취사선택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써야 한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것도 만들어야 한다. 여하간 우리의 행정학을 건설하자. 이런 스토리가 행정학의 토착화·한국화에 관한 아주 오랜, 아주 많은 주장, 토론, 논쟁의 요점이다. 토론이 시간간격을 두고 몇 바퀴를 돌아 봐야 귀결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뻥한 이야기를 왜 우리는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화의 과제는 아주 중요한데 그 실천은 더디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화는 끝없는 숙제로 보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행정학의 세계제패를 구상하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토착화나 한국화라는 말을 잘못 쓰고 오도된 논의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말꼬리를 잡아 논쟁을 벌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행정학의 직수입은 늘어만 가는 것 같다. 한국화가 안 된 것을 개탄하는 세대일수록 학문적 조류의 직수입행동수준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추세는 학문의 세계에서나 실천의 세계에서 다 같이 읽혀지고 있다. 근래의 행정개혁은 압도적으로 모방적이다. 신공공관리나 정부재창조운동은 우리에게 부처님 손바닥이었다. 신우파니 신좌파니 하는 논의도 우리 개혁추진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서가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수십 년 전에 실패했거나 버려진 제도들

을 모방하기도 한다. 외래어 사용이 부쩍 늘고 있다. 사람들은 계획이라는 말 대신 로드맵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비전이나 콘텐츠는 유행어이며 개혁추진자들의 화두이다. 팀은 언어와 실체가 함께 직수입되고 있다. 모방의 범람에 대한 언명은 필자의 착시이거나 과장일 수 있다. 어찌 되었건 이 문제는 우리의 주제가 아니므로 독자들이 과히 탓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행정학계에서 토착화나 한국화를 의제로 삼아 논의하고 우리다운 행정학을 발전시키려 노력한 사람들이 여러 일을 해 왔다. 우리나라 행정학의 토착화·한국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주장하고 그 실천방안을 처방한 사람들이 줄곧 있어 왔다. 근래에는 학문의 ‘현지화’ 또는 성숙의 단계를 구분하고 토착화 단계를 지나 한국화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거나 한국화 단계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들은 토착화를 종속적 관념 비슷하게 보는 듯하다. 외국의 학문을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토착적 필요에 따라 다소간의 수정을 가하는 것이 토착화라고 규정하는 것 같다. 반면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고 외국에까지 전파하는 종주국적·독립변수적 성취를 한국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일견 상쾌한 설명이지만 이론의 창출과 수정이 어떻게 다른지 하는 문제, 그리고 완전히 새로 창출된 한국행정학과 미국행정학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행정학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연관된다. 행정학회 포럼은 많은 지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행정사나 행정사상사를 연구하여 진정하게 한국적인 행정이론·행정사상을 찾아보려고 노력한 이들이 많았다. 그들의 노고와 업적은 칭송받아 마땅하다. 그들이 또 다른 논쟁의 의제를 만든 것도 공로라면 공로이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니 진정코 순수하게 한국적인 것이 있던가를 묻는 질문이 있다. 논어·맹자·성리학·퇴계·실학·당나라 관제 등등이 대표관료제나 실적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보다 더 한국적인가를 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식 개념·모형을 사용해 우리 문제를 연구하는 것, 우리 문제의 연구에 적합한 개념과 모형을 개발하는 것, 우리 행정과 다른 나라 행정을 비교 연구하는

것, 우리나라 행정학설사를 연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에 관한 교과서를 쓰는 것도 우리다운 행정학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

행정학계의 후속세대들이 찬란한 업적을 성취하여 한국의 행정학을 넘어 세계의 행정학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행정학의 한국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꿈은 우리가 행정학의 종주국이 되는 것일 터이다.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 바란다.